

“가을바람 불면 ‘독독독(讀)’ 책이 노크하네요”

해남군립도서관, 9월 ‘독서의 달’ 맞아

독서왕 선발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

“가을바람 불면 ‘독독독(讀)’ 책이 노크하네요.”
해남군립도서관이 9월 한 달 동안 ‘독독독(讀), 책이 노크하네요’ 주제로 다양한 독서의 달 행사를 펼쳐 주목을 끌고 있다.
해남군에 따르면 이달 동안 도서관에서는 가장 긴 제목의 책을 찾는 ‘책을 찾아라!’를 비롯해 인어소녀 독서퀴즈인 ‘키즈! 퀴즈!’, 올해의 책 서평쓰기 ‘독서 릴레이 읽GO! 쓰GO!’, ‘책으로 끝말잇기’ 등 이용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독서행사가 진행된다.
또 어린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체험행사와 원데이 클래스도 마련돼 ‘비누클레이: 송편만들기’가 7일, ‘스트링아트: 반짝반짝 액자만들기’는 오는 22일 운영된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

참가신청은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도서관 대표 인기행사로 손꼽히는 책 교환전 ‘헌책 다오, 새책 줄게’는 21일 오후 2시에 문화예술회관 다목적실에서 열린다.
다 읽은 헌책을 가져가면 새 책을 포함한 다른 책으로 교환할 수 있다.
독서감상문 공모전인 ‘제27회 해남군 독서왕 선발대회’와 도서대출을 1인 10권까지 늘려주는 ‘도서대출 두 배로’ 테마도서전시, 도서관 시네마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들도 계획돼 있다.
자세한 내용은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거나 군립도서관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많은 분이 도서관에서 책도 읽고 다양한 문화생활을 누리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여름에 열린 해양치유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완도 명사십리해수욕장 백사장을 따라가며 노르딕워킹을 하고 있다. <완도군 제공>

“올 가을 완도로 해양치유 체험 오세요”

20일부터 노르딕워킹·필라테스·요가 프로그램 등 운영

완도군이 가을 해양치유 체험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
봄, 여름에 이어 가을에 진행되는 ‘가을 그리고 치유’라는 해양치유 프로그램은 20일부터 11월 23일까지다.
주요 프로그램은 해양기후 치유 아웃도어 프로그램으로 노르딕워킹, 필라테스, 해변 요가, 명상, 해변 댄스와 함께 척추를 강화해 허리 통증을 완화해 주는 자이로키

네시스를 새롭게 선보인다.
해수를 활용해 아토피, 피부 미용, 혈액 순환을 좋게 하는 해수 찜과 완도에서 해풍을 받고 자란 꽃차 시음, 해양생물을 활용한 톳 유부초밥, 김 주먹밥 시식, 해초 떡볶이와 톳보리빵 시식 등 다채롭고 특색 있게 진행된다.
가을 프로그램 중에는 소방공무원 가족 50명을 대상으로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진

행할 계획이다.
지난해 8월부터 진행한 해양치유프로그램에는 484명, 올봄 894명, 여름 2252명이 참여했다.
새로운 관광 트렌드를 제시하며 매회 인기에 운영됐다고 군은 설명했다.
‘가을 그리고 치유’ 해양치유프로그램은 선착순 30명 모집으로 관광객, 지역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완도군 홈페이지나 해양치유산업과 해양 의료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주재총괄본부장

해남군, 로컬푸드 직매장 내년 52억원 들여 짓는다

해남군에 2020년 여름 ‘로컬푸드 직매장’이 들어선다.
해남군에 따르면 해남군의회는 지난 29일 제295회 임시회를 열어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의 건’과 관련 예산 52억원을 통과시켰다.
군의회는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예산 승인에 따라 2015년부터 시작된 직매장 건립에 대한 논란에 마침표가 찍혔다고 군 관계자는 밝혔다.
군은 9월부터 용지 매입 절차와 설계 및 착공계획을 추진해 내년 여름 로컬푸드 직매장을 준공할 계획이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

완도군, 공직비리 고강도 처벌 ‘공직자 비위행위 점수제’ 운영

완도군이 공직비리를 뿌리뽑기 위해 고강도 처벌을 내놓았다.
완도군은 공직비리를 척결하고 청렴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공직자 비위행위 점수제’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시행하는 ‘공직자 비위행위 점수제’는 불친절이나 소극적 업무처리, 무단 이석·결근, 직무 태만, 지시사항 불이행, 허위 초과근무·출장 등 비위행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비위 점수가 쌓일수록 페널티가 부과된다. 페널티로는 인사 전보, 인사 감점, 사회봉사활동, 성과상여금·복직 포인트 미지급, 직위 휴양시설 이용 배제, 교육 훈련·국내외 연수 배제 등이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주재총괄본부장



진도군 ‘비전2030·현안 과제’ 청사진 제시

이동진 군수, 조도대교·국제항 건설 등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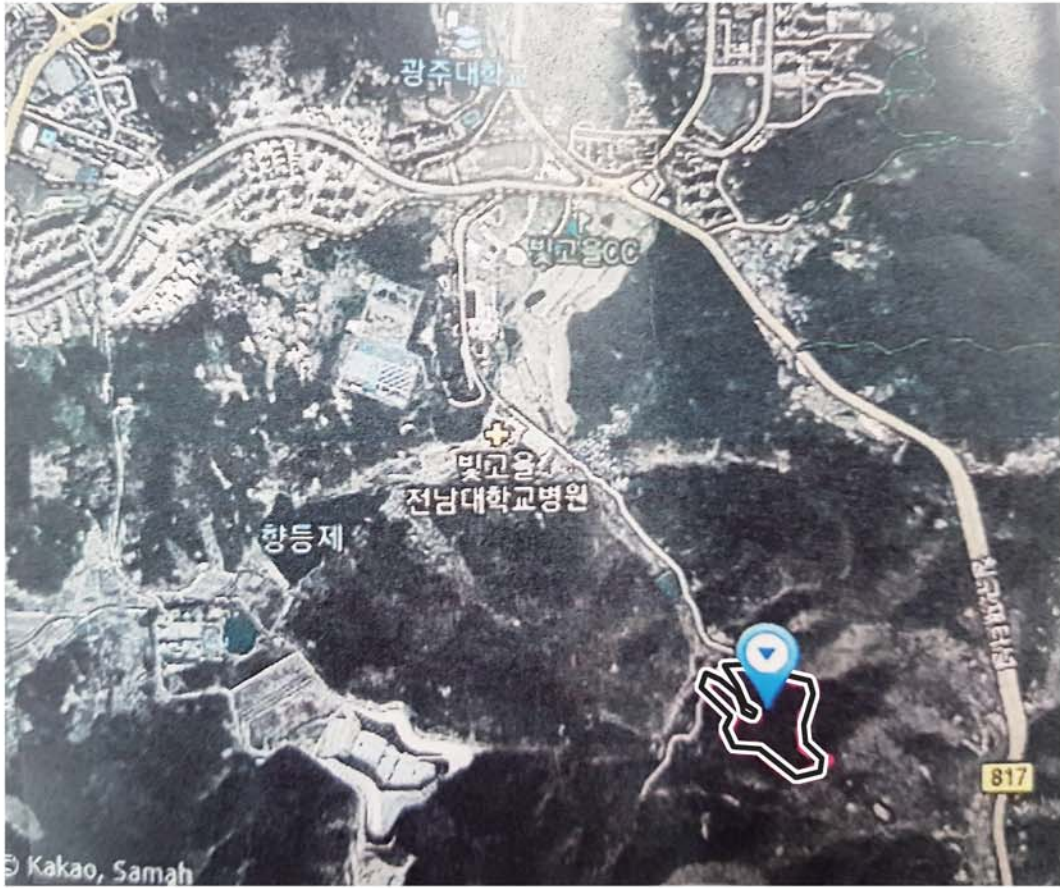
진도군의 비전 2030과 현안 과제 청사진이 제시됐다.
이동진 진도군수는 지난 2일 대회의실에서 ‘민선 7기 희망찬 군민, 번영하는 진도’란 슬로건으로 군정 비전 및 군정 운영 방향, 핵심·현안 사업 등을 설명했다.<사진>
설명회는 기존 틀을 깨고 이 군수가 직접 PT(프리젠테이션)를 통해 공직자 앞에 보고자로 나섰다.
쑤비치 호텔&리조트 진도 개장을 비롯해 진도출신 가수 송가인씨의 전국적인 인기 등 새롭게 부각되는 진도군 매력과 발전에 대한 군민들의 기대에 응대하기 위해서다.
여기에는 공직자·군민들과 소통하며 군민 참여 속에서 군정을 이끌고자 하는 이 군수의 강한 의지가 담겼다고 군은 설명했다.
이 군수는 공직자들에게 진도군이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

면서 지속가능한 발전 정책을 강조했다.
특히 관련 기관에 꾸준히 건의해온 국도18호선 기점 변경(조도대교 건설), 국도18호선(포산-서망) 4차로 확장, 진도 해안일주도로 국도77호선 승격, 접도 연도교 건설, 진도 국제항 건설 등 현안 사항을 설명했다.
미래 발전 계획인 ‘진도군 비전 2030’ 설명과 함께 민선 7기 임기 내 사업 실행력 향상을 위한 군정 주요 현안 과제도 함께 제시했다.
현안 과제는 7개분야 83개 사업으로 쑤비치 호텔&리조트 2단계 사업, 진도읍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 섬 마을 정주환경 정비 등이다.
이동진 진도군수는 “진도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한마음 한뜻으로 자신감을 갖고 심도 있게 도전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진도=박현영 기자 hypark@

진도군,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23일까지 열람·의견 받는다

진도군은 올해 수시분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과 의견을 오는 23일까지 20일 동안 진도군청 민원봉사과와 읍·면 민원실에서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올 상반기 토지이용이 발생한 개별토지는 1100필지로, 공정하고 신뢰있는 행정을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선임한 전문감정평가사가 감정을 마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열람을 실시하고 있다.
열람 후 조사된 지가에 대한 의견제출서는 오는 23일까지 진도군청 민원봉사과와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적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할 계획이다.
또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진도군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친 후 그 처리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할 방침이다.
전체 조사된 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는 진도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31일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진도=박현영 기자 hypark@



덕남동, 임야 **급매** 장단기 최고 투자 **물건**

- 992㎡, 지분 매매
- 도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도로접
- 인접토지 맹지도 15~20만원에 매매 됨 (덕남동 산64-21번지)
- 대학교수, 세무사, 간호사도 공유자임
- 각종 개발 호재 많음
- 장/단기 최고 투자 물건
- 기획부동산 물건 아님
- 매매 - 4500만원(일시불 조정가)

문의. 010-6834-7400